

프란치스칸 삶

다른종류의 아름다움

프란신 기코우, OFS

당신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오늘날까지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누군가에 의한 또는 어떤 경험으로 인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당신의 삶에서의 기쁨을 방해하는 수하물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까? 당신은 치유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탄원을 무시한 것처럼 보입니까? 상처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상처 받은" 경험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면역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몫 이상의 더 많은 재앙과 고난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화와 사랑을 보여주는 어떤 사람을 알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 상처와 성스러운 것, 아름다움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성 프란치스코는 감정적 그리고 육체적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의 감정적인 상처는 페루시아에서의 전쟁 경험과 이제 알려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발병에 의해 야기되었을지도 모릅니다.¹ 감옥에서 성 프란치스코는 그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프란시스는 (필시) 아버지와의 분열된 관계에서 정서적인 상처가 있었는데 결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프란시스의 신체적 상처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악화되는 건강과 시력은 그의 사역을 저해했습니다. 그것은 좌절감과 고난의 근원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은 남몰래 그리고 침묵 속에서 그리스도의 상처를 육체적으로 견디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첼라노는 프란시스의 육체적 상처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의 역설에 대해 숙고했습니다.

"... 그의 육체적 상처들이 그 병들고 고통스러운 몸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세상에 왔던 성육신 하신 말씀에 의해 우리들의 상처가 변형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²

메리 테레사 다우닝 수녀, OSC는 "그 상처들은 하느님의 손에 의해 각인된다. 특히 우리가 구속 사역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다³고 말하면서 우리 상처의 성화를 묘사합니다." "구속 사역"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속 사역"이라는 것은 세상의 성화를 위해 예수와 함께 고통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 (고통)을 바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기 바침"은 우리가 자기 연민을 떨쳐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해 줍니다. 또 상처에게 영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우리의 상처를 소중하게 만듭니다. 프란치스코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현존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하느님께 우리 고통을 바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은 때때로 확실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계속 키우고 그에 따라 그들에게 과도한 관심을 줌으로써 그들을 확대시키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민을 키우는 대신, 상처를 자신의 "구원 사역"으로 만들어서 상처를 가지고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돌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간단하지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하느님과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일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움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시로 배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한 상처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글라라 성녀가 말했듯이 "우리 배우자를 모방하기 위해 응시하고, 숙고하고, 관상하십시오 [원문 그대로]"⁴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가 "수하물"이나
견디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가 보시는 대로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그와 함께 고통받으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울면, 당신은 하느님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와의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어 가면서,
당신은 성도들의 영화 가운데 하느님과 함께 거대한
저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⁵*

¹Weichec, Nancy. "St. Francis and US Veterans." *St. Anthony Messenger*, 24 Oct. 2018.

²Celano, *Life of St. Francis*, Ch IX as described in Downing, OSC., Sr. Frances Teresa, *Saint Clare of Assisi*. Tau Publishing, 2015. p. 154-5.

³Downing, p. 154.

⁴2LAg:20

⁵2LAg:21